

The 외국인 is back



[Market Analyst] 이재원 연구원

KOSPI는 1.5% 상승한 2,600p. 원달러 환율 안정과 함께 외국인 현선물 순매수 전환에 전업종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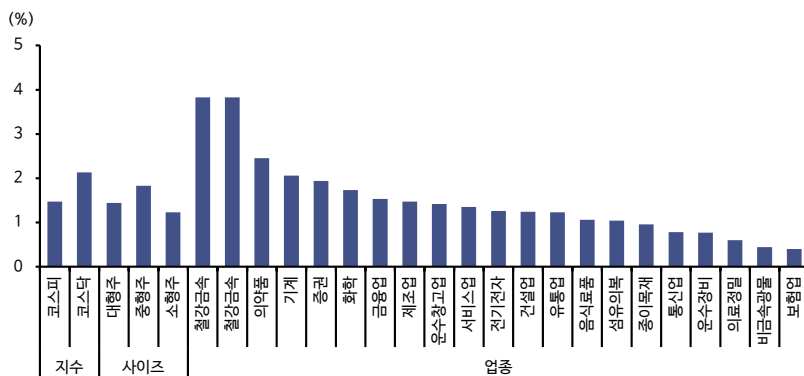
- 미국 주식시장은 유가 및 시장금리 안정에도 기업 실적 영향에 빅테크 중심 낙폭 확대하며 하락 마감 :ASML(-6.7%) 실적 예상치 하회(수주 잔고 예상 대비 부진)에 엔비디아(-3.9%) 포함 반도체 업종 하락 :연준 베이지북서 경기 확장세 견조한 흐름 재확인. 원유재고 증가 소식 및 중동 우려 완화에 유가 하락
- KOSPI는 1,400원까지 도달했던 원/달러 환율 1,370원대까지 하락하며 외국인 자금 유입 속 반등 : 한국은행 총재 IMF 춘계 회의 대담에서 환율 오버슈팅 확인 및 안정화 가능 발인. 시장개입 가능 시사 : 환율 진정되며 외국인 현선물 동반 순매수. 현물 1,800억원 선물 9,000계약 넘는 매수세 유입 : 외국인 자금 유입에 KOSPI 반등폭 확대. 전일 12MF PER 10.2배(Refinitiv 기준)로 가격 매력도 확인 : 저가매수세에 전 업종 상승. 실적 기대되는 화장품 업종 상승 지속. 아모레퍼시픽 52주 신고가 경신 :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철강/알루미늄 관세 3배 인상 시사에 비철, 조선 업종 등 반사수혜 기대 속 상승

KOSDAQ은 2.2% 상승한 851p. 중동 지역 긴장 완화에 저가 매수세 유입되며 강세

- 전 거래일 기준 4월 달에만 8% 하락한 KOSDAQ. 저가 매수세 유입에 KOSPI 대비 아웃퍼폼 : 제약바이오 등 단기 하락 과대 업종 중심 강세. 반도체는 ASML 어닝쇼크 영향에 지수 대비 부진 : 철강, 희귀금속(미국의 중국산 철강, 알루미늄 관세 인상 추진), 2차전지(저가 매수세 유입, 탄산리튬 반등)

원/달러 환율은 중동 지역 긴장 완화, 외환당국 구두 개입 영향 이어지며 8.5원 하락한 1,378.3원 아시아 증시 혼조. 일본(니케이) -0.2%, 대만(가권) -0.3%, 홍콩(항셱) +0.2%, 중국(상해) -0.3%

업종별 주가 등락률





Compliance Notice

- ◆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이재원)
- ◆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,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.
- ◆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◆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.
- ◆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,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.
- ◆ 당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,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- ◆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, 대여,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.